

■ 광주은행 송기진 행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어닝서프라이즈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

(사상 최대 실적)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을 이끌고 있는 송기진 행장이 지난 26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송 행장은 올해 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사상 최대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객만족도·사회공헌 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영으로 행격(行格)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행장은 28일 광주일보와 취임 2주년 인터뷰를 갖고 “공사적전(肯思積踐·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의 자세로 광주은행의 브랜드 파워·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고객만족을 위해 소비자 보호실을 신설하고 중기지원을 맡을 올촌산단지점·서울 구로 금융센터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행장과 일문일답.

-취임 2주년의 감회가 남다를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광주은행도 각종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5월말 기준 가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66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의 당기순이익인 620억원을 불과 다섯 달 만에 넘어섰다. 올해 신년사에서부터 '2010년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을 장담해 온 것이 상반기부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은행의 향후 비전을 말해달라.

▲광주·전남·서울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시장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 전남지역 영업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전남 동부지역의 금융허브 역할을 전담할 전남동부영업부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보호실도 설치하겠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확고한 영업기반을 구축한 뒤 오는 7월초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구로금융센터지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해외 지점 개설도 검토하겠다.



소비자 보호실 설치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

전남 동부영업부 신설 검토

서울금융센터 수도권 공략

-광주은행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정부방침과 대주주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예정이다. 오로지 광주은행의 기업 가치 향상 및 브랜드파워 제고에 주력할 생각이다. 광주은행의 이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 우선 지역은행의 역할과 책무

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으로서 지역민들, 지역기업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

-경영의 현수소를 말해달라.

▲올해 5월말 순영업수익이 지난해 동기대비 351억원(20.1%) 증가한 2099억원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금호산업·남양건설 등 지역 중견기업들의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악재가 없었다면 5월말 현재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을 것이다. 지난 당기순이익이 6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어닝 서프라이즈 추진성과는

▲올 연말까지 수신은 최대 1조5000억, 여신은 1조3000억 정도를 늘릴 계획이다. 총자산도 18조4000억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난 5월 말에 이미 18조를 넘어섰다. 자산을 1조1000억원 정도만 늘려도 올해 계획한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인 2000억원대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는데.

▲광주은행 리더스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다. 취임했을 때 회원수가 134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402개로 늘어나 3배 이상 증가했다.

‘소호명가(所湖名家)’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은행이 지원하는 소호명가는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지원·활성화 방안은

▲지역 중견기업들의 워크아웃과 기업회생 신청 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업에 모두 1351억원을 지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 지역인재 육성,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무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발고 출신인 송 행장은 상업은행 대립동지점장, 한빛은행 수원지점장, 우리은행 영업지원단장과 부행장 등을 거쳐 2008년 6월 제10대 행장에 취임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창업상호저축銀, 스마트저축은행으로 새 출발

내달 1일부터 社名 변경

창업상호저축은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스마트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 영업을 시작한다.

광주지역 기업인 대우에이텍과 대우신소재는 “30일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7월1일자로 사명을 스마트저축은행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

혔다. 대우에이텍과 대우신소재는 최근 240억의 유상증자를 통해 창업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인수했다.

새 출발하는 스마트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유상증자로 BIS자기자본 비

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수도권에 2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에 서울지점, 내년 6월 경기지점을 개설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에이텍과 계열사인 대우신소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광주시 광산구에 공장과 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진흥기업 ‘금호 진흥 더루벤스’ 특별 분양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에 ‘금호 진흥 더루벤스’ 잔여세대를 특별분양한다.

금호 진흥 더루벤스는 지하 2층·지상 9~16층 7개동 전용면적 165㎡(49평) 330가구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선반 환인과 발코니 확장, 주방가전·불박이장 풀 옵션 무상 제공 등 분양조건이 좋고 교육·교통·문화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금호지구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최초로 계약조건 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최초 계약자가 분양받은 이후 분양 가격이 최초 분양시점보다 낮아질

경우, 낮아진 분양가격으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제도다. 즉, 먼저 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도 나중에 분양조건이 변화하면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을 빨리 할 수록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잔금을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고, 빌트인 냉장고·가스·오븐 등 주방가전과 천장형 에어컨, 불박이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월드컵 16강 진출 이벤트로 7월 계약자 중 선착순 16세대에 한해 55인치 디지털TV를 증정한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시공능력 40

위로 최근 신용평가에서도 정상 등급을 받았다”며 “광주 수완지구 100% 분양에 이어 주거만족도와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은 금호지구에서도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2-352-959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28일자 9면 ‘건설사 6·25 구조조정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진흥기업은 채권은행 신용위협평가에서 0등급이 아닌 정상 판정을 받았기에 바로잡습니다.

■ 키워드 경제

BIS비율은 은행 건전성 나타내는 지표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위험자산(대출을 해줬거나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산출한다. 즉, 은행들이 대출이

나 투자로 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일 때 경영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안전기준인 셈이다.

국제결제은행은 국제 신용혼란과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88년 이 기준을 마련했고, 1992년 말부터 적어도 8%를 유지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에 BIS비율 8%를 기준으로 은행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사용했다. 은행들이 이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건 이 때문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 경제·문화공동체

Advertisement for 'Good Protectio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LIERAC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product images, with text about anti-aging and skin care.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eye clinic,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about eye car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